

생명적 비결정성의 의미 - 베르그손의 진화론 해석 -

황 수 영*

생명의 문제가 철학에서 주제화된 것은 철학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과학의 발달 그리고 19세기에 등장한 진화론의 관점과 더불어 생명을 물질로 취급하게 된 상황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역사를 가정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의 생명관에 심층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더구나 오늘날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자생물학의 성과를 볼 때 유물론적 생명관은 과학 뿐만 아니라 철학에서조차 난공불락의 위치를 점하게 된 듯하다. 본 논문은 생명의 의미를 탐구함에 있어 유물론적 관점이 가진 의의와 한계를 지적하고 무엇보다도 인간에서 개화한 의식과 정신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이며 심층적인 생명관을 전개한 앙리 베르그손의 진화론 철학을 고찰함으로써 오늘의 우리가 생명의 역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가능해 보고자 한다.

【주요어】 생명, 의식, 생기론, 기계론, 유기론, 비결정성, 지속

1. 문제의 위치

생명이 하나의 독자적인 실재성을 구성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은 물질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보다 고차적인 존재방식에 불과한 것인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기계인가 하는 것은 철학의 영역에서는, 비록 최신행의 주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부단한 논쟁거리로 되어 왔다. 자연과학은 단지 방법론상의 요구에 의하였건 아니면 암묵적인 가정에 의하였건 간에 생명을 물질로 취급함으로써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무엇

* 한국의국어대학교 철학과 강사

보다도 분자생물학의 가공할만한 성과에 의해 오늘날의 과학은 적어도 생명체의 영역에 있어서는 다시금 데카르트적인 이상을 실현할 단계에 이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과학의 가정을 문제시하거나 그것의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과학적 작업의 의의를 축소시키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그것은 자연과학자들이 고단한 노력의 대가로서 성취할 수 있었던 성공을 질투하는 게으른 인문학자들의 태도와 다르지 않다. 과학이 이루어낸 성과와 그것이 가정하는 바를 무시할수록 스노우가 말한 두 문화, 즉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간극은 넓고 깊어질 것이다. 과학의 문제에 관한 한 인문학자들은 이제 무관심에서 벗어나 그 성과가 인문사회과학에 미치는 결과를 광범위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이르른 듯하다.

종건 싫건 간에 자연과학은 하나의 형이상학 즉 유물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형이상학은 물질적 법칙들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자족적 체계이다. 때문에 그것을 비판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그 체계 밖에서, 과학적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물론 어떤 철학자가 과학의 내부에서 그 이론들의 자기모순성을 드러냄으로써 -가령 베르그손이 했던 작업과 마찬가지로- 과학의 암묵적 가정을 논파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철학적으로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과학 역시, 진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진화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과학의 이론들과 맞대결을 시도했던 철학들도 시간의 시험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의 과학은 고전적 기계론과는 달리 상당히 유연한 모습을 띠고 있으며 과거에 철학에 의해 가해졌던 많은 비판들을 상당부분 극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적'이라 할 수 있는 요구가 남아 있는 한 철학자들의 비판적 작업은 계속될 것이다. 생명의 물질적 불가환원성이라든가 인간의 자유의지와 같은 논쟁적 주제들은 과학자들에게는 놀라울 정도의 무관심 속에서 지나쳐지며 이러한 과학자들의 태도 또한 두 문화의 벽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이 전통적 주제들은 철학자들에게는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며 이제는 과학과의 영역다툼이나 무관심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고리를 찾지 않으면 공허한 이야기로 들릴 상황에 이르렀다.

자연과학적 방법론과 철학적 이상의 완벽한 결합의 형태를 우리는 데카르트의 철학에서 볼 수 있거나 여기서 물질의 운동방식과 생명의 그것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한 기계적 법칙에 종속된다.¹⁾ 그러나 이 완벽해 보였던 형이상학은 우선 생명의 영역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빠져거리기 시작한다. 생물학사에서 볼 때 데카르트의 동물기계론은 당시의 생물학의 태동에 저해요인이 되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생명의 문제에 관하여 데카르트의 입장에 반대하는 다양한 조류들이 있었으나 분명한 근거와 이론을 가지고 상당기간 영향력을 행사했던 입장은 18세기 말경 일군의 생리학자들에 의해 나타나는데 이들의 입장은 생기론(生氣論, le vitalisme)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운다. 생기론은 그 용어가 주는 그다지 명확하지 않은 어감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 분명한 존재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이 생리학자이면서 의사이기도 했던 생기론자들은 인간의 신체의 기능과 질병을 연구하기 위해 물질의 분석에만 의존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가령 건강은 신체 각 부분들의 조화이며 질병은 그것의 파괴라는 생각은 히포크라테스 이후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서 그들은 신체 각 부분들의 조화를 유지하는 하나의 힘을 상징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생명원리(le principe vital) 혹은 생명력(la force vitale)이라 불렀다.²⁾ 생명원리는 한

- 1) 데카르트가 인간영혼을 사유하는 실체로 규정하여 동물-기계와는 구분되는 자유의지를 인정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인식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절대권력을 구성하던 교권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데카르트의 전략적 의도가 있는 것도 염연한 사실이다. 뒤이어 말브랑슈는 신학적 동기에서, 정신-물체의 상호작용을 기회원인으로 설명함으로써 신 이외의 모든 존재에게서 자유의지의 가능성을 박탈했다. 이러한 태도는 라 메트리의 인간-기계론에서 극단적으로 발전되는데 사실상 이 흐름은 신학적 권위와의 대결의 결과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뿐 데카르트의 학문적 태도의 자연적 귀결로 볼 수 있다.
- 2) 깡길렘에 따르면, 의학에 있어서 생명원리라는 개념의 도입은 질병의 원인을 규정하기 이전에 그것의 흐름을 예측하고 의학기술에 대한 맹신을 경계하는 신중한 태도와 관련이 있다.(Georges Canguilhem, *La connaissance de la vie*, Vrin, p. 86) 따라서 그것은 형이상학적 원리라기 보다는 생명현상의 설명에 있어 기계론적 형이상학이 야기할 결과들을 경계하는 예방적 차원의 가설이다. 어떠한 하나의 이론으로서의 소극적 특성을 보여 주는 까닭에 그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유물론과 유심론의 양측으로부터 비판의 화살을 면할 수 없

편으로 생명체의 조직화, 질서, 통일성 및 합목적성과 다른 한 편으로는 생명체에 독특한 열량의 소비와 생식의 기능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였으며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일종의 조작적(operative) 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 어쨌든 그것은 생물학이 물리학과 구분되어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³⁾ 그러나 철학적으로 볼 때 생기론은 물질과 생명의 이원론을 가정할 뿐만 아니라 생명체 내에서도 고차적인 정신현상 - 의식이나 관념 등 - 을 설명하는 데는 난점을 보여 유물론과 유심론의 양쪽에서 비판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무엇보다도 에너지와 유전정보의 개념에 의해 생명원리 혹은 생명력이 설명하던 많은 현상들이 물리화학적 방식으로 설명가능해졌다. 이미 생물학 내에서는 생명원리라는 개념은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된 지 오래다. 이처럼 다양한 생물과학들의 발전 특히 진화론의 등장 이 후 오늘날의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인공지능학의 발달을 살펴볼 때 생명현상에 관한 데카르트적인 기계론적 이상은 퇴색하고 있기는커녕 새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은 또한 그다지 단순하지 않다. 현대생물학의 이론들이 과연 기계론적 입장을 완벽하게 지지하는가는 답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오늘날 생기론과 기계론의 전통적 논쟁은 종식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이념은 유기론(organicism)과 환원주의(reductionism)의 논쟁 속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⁴⁾ 환원주의자들은 생명적 현상을 그 구성분자들의 구조에 의해 전적으로 설명가능하다고 본다. 세포 내의 유전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복사되어 후대에 전달되고 종의 안정적 특성을 유지하게 한다. 생명체의 성질과 기능, 생식현상은 전자계산기와 같은 기계적 프로그램의 실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유비는 매우 불완전하다. 우선 기계는 스스로를 재생할 수 없으며 엔트로피의 증가에 의해 점차 마모된다. 반면 생명체는 수정에 의해 새로운 개체를 창조하고 이 행위는 시간 속에서 영속한다. 게다가 유

었다.

3) F. Jacob, *La logic du vivant, une histoire de l'hérédité*, Gallimard, p. 106.. 프랑수아 자콕, 『생명의 논리, 유전의 역사』 (이정우 옮김, 민음사), p. 155.

4) David Hull, *Philosophy of biological science*, Prentice-Hall, Inc, pp. 125-134.

전 프로그램은 생명체의 삶과 행태를 엄격히 고정하는 것은 아니다. 유기체는 환경에 적응함에 있어 놀라운 유연성을 보여 준다. 복잡한 유기체에서 나타나는 신경체계의 기능과 기억 능력의 중요성은 생명적 자발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 모든 것이 유전 프로그램의 작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본질은 기계적 실현이기보다는 생명적 유연성과 변화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하고 반문할 수 있다.⁵⁾ 이런 의미에서 생명의 의미에 관한 전통적 논쟁은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이다. 유기론이란 생명체에 대한 형이상학적 입장을 내포하거나 방법론적으로 엄밀히 정의되는 입장이기 보다는 생명체를 물리화학적 방식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태도를 부정하는 모든 입장을 지칭하는 것이다.⁶⁾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생기론의 출현 당시의 상황을 연상시킨다. 물론 과학적 방법론으로서 엄밀히 정의되지 않는 생기론이나 유기론과 같은 것이 과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생기론이 역사적으로 생물학의 독립적 발달에 기여하였듯이, 유기론은 환원주의의 한계를 인정하고 생물학에서 보다 넓은 시야를 열어줄 수 있는 가설 또는 철학적 태도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환원주의나 기계론적 입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방법론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실제로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으며 이 영역이 그 중요성에 있어서 결코 간과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것은 인간적 의미의 세계라든가 세계를 보는 방식과 관련된 철학적 문제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서두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철학과 과학의 극단적 구분은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마도 생명의 의미에 대한 탐구는 철학과 과학의 경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적절한 지적일 듯하다. 따라서 인간주의적 관점에서 굳이 시작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그 자체로서 분석하는

-
- 5) 여기에 제시한 몇몇 구체적 논변들은 유기론자의 것이기 보다는 프랑수아 자콥의 책에서 인용된 것이다. 이 생물학사가는 엄밀히 말해 유기론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나중에 자세히 보게 될 베르그손의 생각들에 접근하고 있는 점에서 그의 견해를 다소 자세히 소개하였다. *La logic du vivant*, p. 17-18.
 - 6) 대표적인 유기론자로는 깡길렘, 마이클 폴라니, 에른스트 마이어 등을 들 수 있다.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석의 실마리로서 베르그손의 생명이론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베르그손의 생명이론이 하나의 형이상학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의 생명적 형이상학의 핵심 내용인 '생명적 도약(élan vital)의 개념은 가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의 입장은 종종 과장되어 왔고 그의 풍부한 분석과 통찰은 간과되었다. 우리는 베르그손에 있어서 생명의 비환원주의적 특성, 그것의 독특한 내용에 대한 고찰을 위해 '비결정성'(l'indétermination)의 문제에서 출발하기로 한다.

2. 물질적 비결정성과 생명적 비결정성

일반적으로 고전물리학이 결정론을 함축하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을 지탱하는 견고한 토대는 절대시간과 절대공간의 이념이다. 여기서 시간과 공간은 사실상 물질의 운동에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투명한 바탕을 이루고 있다. 뉴턴 역학의 무대는 유클리드적 3차원의 공간으로서 언제나 정지해 있고 어디서나 균일한, 동질적인(homogène) 장소이다. 한 편 시간의 흐름 역시 물질적 세계와 아무런 관계없이 한결같이 진행된다. 이러한 순수한 시공체계에서 운동은 엄격한 인과론적 결정론에 지배된다. 따라서 이론상 한 물체 혹은 한 체계의 미래의 상태는 현재의 혹은 어떤 순간에 든 이미 알려진 요소들에 의해 완벽하게 예견될 수 있다. 시간은 운동과 변화를 담지하는 수동적 그릇일 뿐 어떤 적극적인 작용도 하지 않으며 이 사실이 결정론적 체계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이다. 가령 일정한 법칙에 따라 운동하는 물체를 표현하는 운동방정식에서 시간이란 자의적으로 조작할 수 있고 반대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즉 가역적인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 화학적 변화의 경우 명백한 모순이 발생한다. 그것은 물질을 이루는 부분들 즉 소립자들의 위치이동으로 표상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변화가 부분들의 위치이동이라고 보는 것은 베르그손에 따르면 불가분적 실체를 가정하는 지성의 요구에서 파생한 것이다.⁷⁾ 시간과 물질에 대한 이러한 인위적인 취급방식은 고전역학에서 그

절정에 달하며 그것은 그야말로 자연에 대한 지성의 승리를 목격한 순간이었다.

고전역학에 대한 베르그손의 비판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가정하는 물질과 시간의 본성에 관련되어 있다. 과학적 조작 속에서 닫혀진 하나의 체계는 결정론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이러한 조작은 완전히 인공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물질은 스스로 고립된 체계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 고전역학은 이 경향을 절대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실재(*la réalité*)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은 시간에 의해 변화하며 과거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흐름이다. 베르그손의 표현을 따르면 변화 자체가 시간인 것이다. 가령 어떤 종류의 화학적 변화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두 종류의 액체를 하나의 용기에 넣을 경우 그것들이 균일하게 확산될 때까지 매순간 시간의 작용을 받게 된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혼합물은 과거의 그것들과 질이 다르며 더구나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없다. 베르그손이 제시한 유명한 예를 들면, “만약 내가 한 컵의 설탕물을 만들기 원한다면, 나는 설탕이 녹기를 기다려야만 한다”⁷⁾ 이 기다려야만 한다는 사실은 단순히 심리적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비가역적이며 마음대로 늘이거나 줄일 수도 없는 실재적 시간의 흐름 즉 ‘지속’(*la durée*)에 상응하는 것이다.

물질을 시간 속에서 어떤 질서를 갖는 흐름으로 보는 베르그손의 생각은 드 브로이(*de Brogli*)의 물질파 개념의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전적 기계론은 양자역학에 의해 그 절대적 의미가 붕괴되었다. 그러나 『창조적 진화』(1907)가 출판되기 이전 베르그손은 이미 고전역학의 근본적인 난점을 드러내고 물질의 시간의존성 즉 비결정성에 대한 이론을

7) ‘불가침투성’(*l'impénétrabilité*)에 관한 베르그손의 논의는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그에 따르면 부분들이 상호침투할 수 없는 단순하고도 고립된 입자를 가정하는 것은 지성의 근본요구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저항없는 물체나 무게가 없는 물체보다 부분들이 상호침투하는 흐름으로서의 물체를 더욱 상상하기 어려운 이유는, 불가침투성이 경험적 성질이기 보다는 지성의 논리적 요구이기 때문이다. (*Essai sur les données immédiates de la conscience*, P.U.F., p. 66)

8) *L'évolution créatrice*, P.U.F., p. 9.

세우고 있다. 『창조적 진화』의 3부에서 진행되는 열역학 제 2 법칙에 대한 베르그손의 해석은 그의 시간론과 비결정성의 형이상학을 세우는 데 하나의 과학적 근거로서 제시되고 있다. 이 후 몇 십년 사이에 진행된 과학사의 혁명적 사건들은 그의 관점의 예언적 의미를 보여 준다. 상대성 이론에 의해 절대시간과 절대공간의 이념이 붕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자론에 의해 견고한 입자의 개념은 파괴되었다. 아원자적 상태에서 물질의 존재방식은 존재하려는 '경향'을 확률로 나타내는 파동함수로 규정된다. 물질은 더 이상 객관적 대상으로 성립할 수 없고 관찰자의 참여에 의해서만 드러나는 불확정적인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으로부터 전통적 의미의 인과율과 결정론 그리고 시간의 가역성은 포기된다.

물질과 생명의 관계에 관해 베르그손은 '비결정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의 지속이론의 심화와 확대에 의해 이루어진다. 물질적 비결정성의 개념은 물질도 지속한다는 데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의식이나 생명 일반의 지속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의식과 생명이 지속한다는 것은 거기서 과거가 현재에 적극적으로 보존되며 현재는 새로운 것이 잇따라 첨가되는 질적 변화의 흐름 즉 상호침투하는 흐름이라는 데 기인한다. 물질도 역시 규칙성 속에서 어느 정도 과거를 보존하고 있다. 만약 한 존재가 매순간 무규칙적으로 변화한다면 거기서 과거의 흔적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물질의 경우 이 흔적은 규칙성 혹은 반복성에 의해 드러난다. 가령 아원자적 상태에서 소립자들이 끊임없는 운동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에 견고함과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은 파동의 확률함수로서 설명될 수 있는 소립자 운동의 규칙성에 기인한다.⁹⁾ 그런데 실상은 이 규칙성마저 점차로 상실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물질계의 어떤 수준에서 나타나는 '마모'(l'usure)라는 현상은 물질 속에서 과거가 보존되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점차로 그것마저 해체되어 자연의 균일성 속에 용해되어 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¹⁰⁾ 이처럼 물질의 안정성 혹은 규칙성이 완벽하지 않은 이유는 베르그손에 따르면 그것이 어디까지나 지속하는 실재이기 때문이다.

9) 하이젠베르크, 『철학과 물리학의 만남』, 최종덕 옮김, 한겨레, p. 176.

10) Jacques Chevalier, *L'habitude, Essai de métaphysique scientifique*, Boivin, p. 25.

생명체의 경우 지속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상태의 보존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의 첨가와 더불어 질적 변화가 야기되고 결국 스스로를 창조하는 적극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생명체의 성장이나 생식의 과정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끊임없는 형태변화와 창조이다. 여기서는 부분과 전체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생명체는 물질과는 달리 스스로 자기동일성(l'identité)을 유지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개체(l'individu)이며 이 점이 물체와 구분되는 생명체의 독특한 본성이다. 물체의 경우 그것이 스스로 자기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떤 물체(le corps)가 하나의 개체로 인식되는 것은 생명체의 인식기능(지각능력) 더 나아가서는 삶의 필요성에 의한다.¹¹⁾ 물질은 비록 일정한 운동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닫혀진 체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물질을 다양한 개체들로 분리해서 인식하는 것은 생명체의 작용이다. 물론 생명체의 영역에서도 개체성을 엄밀히 정의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엄밀한 정의는 완성된 존재에만 적용된다. 생명체는 완성된 존재이기 보다는 언제나 어떠한 특성들을 실현하는 도상에 있으며 그것들은 상태라기 보다는 '경향들'이다. 특히 생식의 경향을 빼고 생명현상을 말할 수 없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생식은 개체성을 위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기체의 개체성이 완벽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도 거기서 분리되어서는 살아갈 수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식이란 낱은 유기체의 일부로부터 새로운 유기체를 재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식현상은 기본적으로 시간 속에서 영속하려는 생명체의 욕구이며 그 때문에 순간 혹은 '공간' 속에서 그것의 개체성은 필연적으로 불완전하게 되어 있다.¹²⁾ 그러나 완성된 존재를 말할 수 없는 것은 베르그손의 지속이론 자체에서 나오는 결과이기도 하다. 실재를 흐름이라고 볼 경우 고정된 실체를 말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며 이 때문에 베르그손의 철학에서 '경향(la tendance)'이란 사물 혹은 생명체의 모습을 묘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용어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생명체는

11) *L'évolution créatrice*, p. 12

12) 베르그손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개체에 있어 시간 속에서 영속하려는 욕구가 그것을 공간 속에서는 결코 완전할 수 없도록 단죄한 것이다." (*Ibid.*, p.

13)

개체성의 추구를 명백히 나타내며 자연적으로 폐쇄된 체계를 구축하려는 경향을 갖는다는 점에서 물질과 구분된다.

이처럼 생명체는 물질과 구분되며 반대로 의식현상과는 많은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두 영역에 있어서 과거는 사라지지 않고 현재 속에 남아 현재와 하나의 통일성을 이룬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유기체가 규칙적 단계들을 경과하며 나이를 먹는다는 것 즉 역사를 갖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신체만 보더라도 의식과 유사하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조금씩 성숙하고 늙어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결국 살아있는 생명체는 의식과 마찬가지로 현재 속에 과거를 보존하며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명체의 역사는 하나의 유기체 안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모두 설명되지 않는다. 한 생명체의 현재 속에서 작용하는 과거의 힘은 그것의 탄생 이전부터 아니 어쩌면 생명의 탄생 이후의 전 역사를 내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진화론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생명의 의미이다. 베르그손의 지속이론은 의식이나 생명체의 본성을 기초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관통하는 개체초월적 흐름으로서 이해된다. 지속의 관점에서 보여진 생명의 진화는 미소변이들의 양적인 축적이 나타내는 일직선적인 흐름이 아니라 무수한 질적 변화들의 집적이 야기한 창조의 과정이며 이 과정의 관념적 시발점으로 가정된 것이 '생명적 도약(élan vital)'이라는 개념이다. 생명적 도약은 구체적으로는 생명이 물질에서 갈라져나온 시점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것은 물질 속에서 일종의 폭발적 힘과 같이 작용함으로써 다양한 생명 진화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3. 생명의 역사와 생명적 도약

진화론의 다양한 형태들은 생명의 진화가 환경에 대한 일련의 적응(l'adaptation)에서 비롯되었다는 가설에 의거하고 있다. 게다가 이에 과학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물질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기계적 과정으로서 이해된 적응의 개념이다. 물론 다양한 이론들의 경우에 적응의 의미는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 가령 정향진화설(l'orthogénèse)에서는 외적 조건

들에의 적응은 생명적 물질에 물리화학적 변화를 촉진하면서 직접적으로 유기체 내부에 한 방향으로 결정된 변이(la variation)들을 초래한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볼 때 적응은 진화의 적극적 원인이 되고 있다. 반면 다윈 주의자들은 잘 알려진 바대로 외적 조건들이 생존경쟁에서 유리한 변이들을 선택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제거함으로써 유기체의 적응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자연선택의 이론은 적응을 정향진화설에 비해서는 덜 적극적인 요소로 본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적응은 우연적이고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것만이 생존조건 속에서 유기체의 삶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는 데는 차이가 없다.

적응에 대한 기계론적 설명의 한계는 그것이 진화를 설명하는 외적 요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생명이 나타내는 목적 혹은 의도와 관련된 현상을 이해하고자 할 때 그것은 장애에 마주한다. 이미 그 난점이 잘 알려진 바 있는 라마르크주의는 생명의 내적 목적이라는 현상을 설명할 때는 매우 장점을 지니고 있다. 비록 획득형질의 유전이라는 라마르크의 핵심적 가설은 부정되었지만 베르그손은 여기서 생명의 '노력'(l'effort)이라는 개념을 재검토한다. 라마르크주의에서는 변이의 원인이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생존조건에 적응하고자 하는 생명체의 노력 자체로 본다. 라마르크의 오류는 이러한 노력이 개체적인 것이고 의식과 의지를 수반하는 것으로 생각한 점에서 인간주의적 관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르그손에 의하면 생명의 변이를 야기하는 것은 개체적인 노력을 넘어서는 좀 더 심층적인 생명적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유기체의 삶의 양태는 개체적으로 획득된 습관을 뛰어넘는 자연적 소질(l'aptitude)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를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가령 두더지가 눈이 멀게 되었다면 그것은 땅 속에서 사는 습관을 갖게 되어 그렇다기 보다는 거꾸로 눈이 멀어가는 도상에 있었기 때문에 땅 속에서 사는 방식을 취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세대를 거쳐 유전이 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실현되어 가는 도상에 있는 '경향들'이다. 이 경향들은 생명체들로 하여금 주어진 조건에 적응하게 하고 다양한 형태의 변이들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베르그손은 여기서 "개체적 노력보다는 훨씬 더 심층적이고, 환경에서 더욱 독립적이며, 한 종의 대부분의 대표자들

에게 공통적인, 그리고 개체가 아니라 배(le germen)에 내재적인 따라서 후손들에 유전될 것이 보장된 노력”의 존재를 추론한다.¹³⁾ 이 개념이 베르그손의 유명한 ‘생명적 도약(l’*élan vital*)의 가설의 실마리가 됨은 말할 필요가 없다. 생명의 원초적 노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엘랑 비탈의 개념은 일단 다양한 형태의 진화론의 난점을 재고함으로써 스스로의 존재를 정당화하고 있으나 좀 더 적극적으로는 1885년에 발표된 바이스만의 생식질 연계설을 검토함으로써 자신의 이론적 토대를 공고히 한다. 주지하다시피 바이스만은 생식질과 체세포를 구분함으로써 체세포에서 일어난 변화가 생식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부정하고 반대로 생식세포는 체세포의 분화 및 개체발생의 전과정을 유도하고 조절한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오늘날의 유전 프로그램에 아주 가까운 생각을 표현했다.¹⁴⁾ 이 이론의 결과는 생명이 배(胚)에서 배로 직접적으로 진행되며 유기체란 생명의 연속성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세대를 관통하는 생명적 과정의 연속성이며 변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원인에 의해 생식질 내에서 일어난다. 오늘날 유전 프로그램은 후대에 정확하게 복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변이의 원인에 관해서 볼 때, 그것이 유전자 내부의 우연적 변화에 기인한다는 것은 여전히 과학적 가설로 남아 있을 뿐이다. 베르그손은 생명의 원초적 도약에서 비롯하는 다양한 경향들이 생식질 속에서 서서히 실현되는 과정에 의해 변이의 원인을 설명함으로써 과학과는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보는 이른바 형이상학적 가설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베르그손의 생명적 도약의 이론은 기계론과 목적론의 논쟁에서 볼 때

13) *L'évolution créatrice*, p. 88.

14) 바이스만의 생각은 1885년 그의 생식질 연계설의 주장 이후에도 20여년간 학계에서 정설로 인정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했던 라마르크주의자들과 새로이 받아들여진 멘델의 유전 원리 때문이었다. (『진화론 논쟁』, 에른스트 마이어, 사이언스 북스, pp. 145-165) 또한 일반적으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진화론에 반대하는 학설들이 생물학의 내부에서도 강렬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다. 베르그손은 이러한 분위기에서 진화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바이스만의 업적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하여 자신의 이론 속에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자신이 언명하였듯이 목적론의 편에 선다. 그러나 그는 목적론이란 용어를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베르그손이 제시하는 목적론의 옹호자는 라이프니츠와 베르그손 당대의 신생기론자들 -드리쉬, 라이케 등-이다. 라이프니츠의 경우 외적인 목적론(le finalisme externe)의 대표자로서 이 입장은 모든 존재가 이미 구성된 하나의 도안에 따라 질서지워져 있으며 세계는 이 계획을 실현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의미의 목적론이다. 이 입장은 각 생명체가 자신의 목적성에 따라 환경에 적응할 뿐 아니라 유기체 전체가 구성원들 사이에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 자체에 의해 명백한 모순에 직면한다. 실제로 자연 속에는 조화로운 계획의 실현으로는 볼 수 없는 무수한 부조리와 갈등이 존재한다. 생존경쟁의 살벌한 싸움터에서 어떤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읽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모순 때문에 외적인 목적론은 내적인 목적론으로 스스로 축소된다. 즉 조화가 외부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각 생명체의 내부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과연 생명체는 무수한 부분들 간에 조화를 이룸으로써 개체 전체의 생존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향해 행동한다. 생기론은 일반적으로 이 입장을 지지하며 생명원리란 앞에서 보았듯이 생명체 내부의 조화를 유지하는 힘을 말한다. 베르그손은 생기론이 기계론의 난점을 지적하고 생명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의 근본적 한계를 일깨워 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생기론이 목적성을 각 유기체의 내부로 축소시켰다고 해서 모순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각 유기체는 생각만큼 그렇게 독립적이지 않고 개체성은 완벽하지 않다. 가령 개미의 어떤 종류에서 개체들의 삶이란 무의미할 정도로 전체 집단의 삶의 과정에 종속되어 있다. 또한 한 유기체를 이루는 부분들은 그 자체가 각각 하나의 유기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우에 부분들의 조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외적인 목적성에 의지해야 할 것이다. 좋은 삶든 간에 유기체의 목적성은 그것이 처해 있는 전체 생명계와 떨어져서 생각될 수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 만약 생명계에 어떤 종류의 목적성이 있다면 가시적인 부조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베르그손은 이를 자신의 생명적 도약의 이론에 의해 설명한다. 종과 개체들은 각각 이기적인 방식으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갈등과 부조화는 거기서 유래한다. 그러나 생명체들은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조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미래에 실현될 지도 모를 하나의 목적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들의 공통적 기원을 형성하는 단일한 '충동'(l'impulsion)에서 나온다.¹⁵⁾ 본래 단일한 전체성으로 출발했던 생명적 노력은 물질 속에 삽입되면서 다양한 경향들로 분기되었고 이 경향들은 생명의 역사 속에서 물질에 대한 적응을 통해 점차 실현되어 가면서 부분적으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상태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

4. 지성과 의식 - 진화의 새로운 도약

생명적 도약의 가설은 물질과 생명의 현상적 이원성을 전제로 한다. '현상적'이라는 수식어가 필요한 이유는 베르그손의 지속의 형이상학에서 볼 때 물질과 생명의 두 개념을 본성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명의 진화는 현상적 과정이며 지속의 일원론으로는 포착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때문에 지속의 개념을 생명의 개념으로 이해하거나 베르그손의 철학을 범생명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둘 다 베르그손 철학에 대한 대표적 오해로 간주된다.¹⁶⁾ 적어도 진화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베르그손은 물질과 생명의 전통적 이분법으로 복귀하는 듯하다. 물질은 고정적 규칙을 따르는 필연성으로 특징지어지고 생명은 자발성과 창조로 묘사된다. 생명적 도약의 가설은 생명이 물질 속에 삽입되어 서로의 힘들의 대립에 의해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을 가정한다. 이 때 생명적 도약은 물질적 힘 앞에서 자신의 한계에 직면한다. 생명이 그 탄생에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수동적인 삶의 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때문이며 오늘날의 우리가 목격하는 능동적인 생명의 다양한 형태들은 상대적으로 뒤늦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인간에 이르는 진화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성과 의식의 개화이다. 생명적 힘은 오랜 동안의 물질에 대한

15) *L'évolution créatrice*, p. 51.

16) 전자는 트로티뇽(Trotignon)의 입장이 대표라 할 수 있고(그의 저서 *L'idée de vie chez Bergson*을 보라) 후자는 철학사에서 흔히 나타나는 오해이다.

적응을 통해 물질적 힘을 극복하는 능력을 획득하였으며 그것이 생명적 자발성의 고차적 특징인 지성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처럼 생명적 도약의 가설은 생명체가 진화하면서 점차로 드러내는 자유의 측면을 조망하기에 유리하다. 비록 그것의 형이상학적 성격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기계론적 설명의 난점을 드러내기에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진화가 우연적, 기계적 과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산술적으로도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물학자들 자신이 지적하고 있다.¹⁷⁾ 진화는 유전적 체계들 자체의 변화에 기인하며 이 변화는 유기체의 환경과는 상관없는 “갑작스런 비약들, 돌연한 성장, 설명할 수 없는 하락” 등에 의해 일어난다.¹⁸⁾ 이제까지 진행된 진화의 경로를 유전 프로그램의 변화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유전자들 수준에서 상호관련이 없는 무수한 사건들의 출현을 가정해야 한다. 따라서 유전 프로그램의 성장에 맞추어 진화의 확률을 계산하려는 모든 시도는 헛된 것이다. 진화의 전개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특히 프로그램의 유연성이다. 환경의 자극에 대한 유기체의 응답은 고등동물로 갈수록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난다. 응답의 무수한 가능성이 열림에 따라 선택의 자유도는 증가한다. 신경체계의 발달은 환경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의 다양성을 반영한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유전 프로그램의 유연성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유연성의 원인 혹은 의미는 또다른 성찰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베르그손은 『물질과 기억』에서 신경체계의 진보를 비결정성의 증가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 생명체는 물질과 마찬가지로 외적 세계의 자극에 대해 반작용을 하는 존재이다. 생명의 원초적 형태인 원형질 덩어리의 생물체에서 외적 자극은 거의 기계적 반응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고등동물로 갈수록 생리적 작용은 감각과 운동으로 분화되고 이를 관장하는 신경세포

17) 프랑수아 자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진화가 배타적으로 미시적인 사건들의 연속에, 각자 우연히 솟아오르는 돌연변이들에 기인한다 해도, 시간과 산수는 서로 대립된다. 하위 단위들 하나하나씩에 있어, 틀렛으로부터 포유류의 신체를 구성할 수 있는 10만개의 단백질 연쇄 각각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태양계에 할당된 지속을 훨씬 넘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La logique du vivant*, p. 329-330, 『생명의 논리, 유전의 역사』 (이정우 옮김), p. 449.

18) Ibid.

들은 하나의 체계를 형성한다. 반응이 직접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은 복잡한 경로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뇌의 작용도 신경계를 통과하는 자극과 반응의 시스템의 연장에 불과하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반응을 '연기함'(retarder)으로써 자극에 더욱 다양한 반응들을 가능하게 하는 무한한 통로를 열어 주는 것이다.¹⁹⁾ 이처럼 발생론적으로 이해되었을 때 신경계와 뇌의 존재의미는 비결정성 혹은 선택의 자유 속에 있다.²⁰⁾ 이 관점에서 볼 때 뇌는 사변적 인식기관이 아니며 단순히 행동을 위한 기관이다.²¹⁾ 지각이나 인식에 관련된 모든 기능들도 실상 행동과 삶의 필연성 위에서 수행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의식의 깨어남도 같은 원인에 의거한다. 생명체에서 만약 자극과 반응이 기계적으로 일어난다면 의식은 깨어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의식은 생명체가 물질의 필연성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깨어난다. 그것은 자유행위와 동시에 출현하며 무엇보다도 '기억'과 '선택'을 본성으로 한다.²²⁾ 고등생명체가 비결정성의 영역에 내맡겨질 때 행동을 선택하는 것은 다름아닌 기억에의 조화에 의해서이다. 신경계를 이루는 수많은 뉴런들의 연결체계 즉 시냅스는 이미 이루어진 무수한 반응 통로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²³⁾ 동물의 진화는 이처럼 신경계의 수준에서 발달된 기억 시스템과 선택의 자유의지를 동시에 보여 준다.

사실상 생명은 동물과 같이 의식이 깨어난 방향으로 진화한 것만은 아니다. 식물에서 나타나는 무감각상태와 동물 중에서도 연체동물과 극피동물에서 볼 수 있는 반수면상태는 의식의 퇴화를 보여 주는 듯하다. 생명의 진화는 척추동물 계열의 종단에 있는 인간의 지성과 절지동물 중 특히 막

19) *Matière et mémoire*, P.U.F., p. 24-25.

20) *Ibid.*, p. 27, 29.

21) 고등동물에서 뇌는 순수한 지적 작용이 아니라 운동과 공간적 조절의 통합 기능을 근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생물학자들에 의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 R. Mourgue, "Le point de vue neuro-biologique dans l'oeuvre de M. Bergson et les données actuelles de la science", *Revue de métaphysique et de morale*, 1920, p. 36.

22) *L'énergie spirituelle*, p. 5, 10.

23) Jacques Chevalier, *L'habitude*, p. 143.

시류의 본능에서 그 만개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²⁴⁾ 인간과 가까운 동물들에서는 지능과 본능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띠고 있으나 인간에서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본능이 거의 퇴화한 대신 지성의 극적인 발달을 목격할 수 있다. 반면 그밖의 동물에서는 생존능력은 본능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어쨌든 이 두 방향이 보여 주는 성공은 물질적 조건에 적응하고자 하는 생명의 노력에서 비롯한다. 본능은 의식되지는 않으나 내적으로 숙달된 인식이며 직접적 행동으로 향하고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획득한다. 가령 벌은 자신의 희생물이 될 곤충을 단 한 번의 침으로 신경중추를 찔러, 죽이지 않고 마비시킨다. 이와 같은 절지동물의 본능은 학습이나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으면서도 그 결과의 정확성에서 볼 때 성공이 보장된 선천적 인식기능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지성은 미지의 세계 앞에서, 직접적 행동이 불가능한 곳에서 생겨난다. 그것은 사물을 분석하고 사물들간의 관계를 정하며 이를 토대로 행동의 계획을 세우지만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사고의 범주로 간주되는 이른 바 오성의 선천적 틀은 행동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생명의 노력에 그 기원을 가지고 있다.²⁵⁾ 가령 미지의 세계에 어떤 정보도 없이 내던져진 존재는 생존을 위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다른 존재들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그들은 그를 위협하는 존재들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들의 수는 얼마이고 그들의 힘은 어느 정도인가, 그가 이런 행동을 하면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등을 따져보는 것은 생존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일이다. 동물의 지능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본능에 자리를 양보한다. 인간에서 나타나는 지성 또는 오성의 범주는 본능의 구체성과 정확성에서 점차 멀어진 인간이 삶의 필연성 위에서 새로이 도약한 결과이다.

물론 지성은 환경에 대한 적응의 측면에서 볼 때 완벽한 인식기능은 못된다. 그것은 여러 가능성들 앞에서 나름대로의 분석을 통해 일정한 행동을 선택하기 때문에 언제나 오류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본능과 같이 어떤

24) 지성(intelligence)은 지능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인간에만 고유한 기능이라 할 수 없으며 인간에서 나타나는 고도의 추론과 반성능력을 지칭하기 위해서는 지능보다는 지성이라는 번역이 적절할 듯하다.

25) *L'évolution créatrice*, p. 151.

특수한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 대상 일반의 관계와 형식에 몰두함으로 인해 지성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힘을 발견한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유용한 대상에만 머물지 않고 인식의 대상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식은 지성의 편에서 거의 완벽하게 깨어난다. 이것은 특히 동물(유인원과 인간의 공동조상)에서 인간으로의 돌연한 도약에서 드러나며 인간을 여타 동물들과 구분시켜 주는 척도가 된다. 가령 인간과 가장 가깝다고 하는 침팬지의 학습과정을 살펴 보아도 그것이 획득할 수 있는 학습이나 운동 습관들이 뇌 속의 운동 기제를 속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인간은 자동적 활동을 억제하고 의지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자발성에 의해 인간에게는 새로운 운동습관을 들이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동물이 종의 습관에 갇혀 있는 반면 인간의 의식은 ‘발명’과 ‘창조’의 방향으로 열려져 있다. 이런 의미에서 동물과 인간의 뇌는 단지 정도차가 아니라 본성적 차이를 드러낸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생명의 필연적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그 자신이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데 이른 것이다. 인간만이 반성적 능력을 보유하며 거기서부터 관념의 세계를 만들어낸다. 이처럼 인간의 진화는 정신적(spirituel)이라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의 세계를 창조한다. 베르그손은 만약 생명적 노력이 자유와 창조라는 본래의 특성을 본능이 아니라 지성의 방향에서 실현하였다면 비유적으로 말해서 인간이 지구 위의 생명적 조직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²⁶⁾ 이것은 무엇보다도 지성적 활동으로 특징지어지는 인간적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5. 맺는말

인간의 고유한 특성인 지성과 의식의 출현에서 유물론과 기계론에 충실한 정통 다윈니즘의 설명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듯하다. 사실상 생물학적 진화의 극적인 전환점은 인류 역사가 대변하는 ‘문화적 진화’에 의해

26) *L'évolution créatrice*, p. 186.

마련된다. 생물학적 진화가 최종적으로 도달한 인간의 뇌는 그 자체로도 진화의 역사에서 하나의 비약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진 유전자적 구조는 다양한 문화적 양태들을 개시하는 데 있어 어떤 종류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나타낼 뿐이다.²⁷⁾ 인간은 이러한 가능성을 무한히 확대하는 방향으로 끊임없는 행보를 해 왔으며 이의 전과정이 관습과 교육, 학습에 의해 후대에 전달됨으로써 인간 고유의 문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관념 혹은 정신의 세계의 창조는 인간 문화의 정점에 있으며 이는 철학자들의 유희로 돌릴 수 없는 실재적 세계를 구성한다. 서술적이고 논쟁적인 언어의 출현, 고도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사회 조직과 그에 따른 다양한 삶의 양식들, 학문과 예술의 발달 등으로 표현되는 인간의 문화는 더 이상 유전자풀에 의해 결정되거나 그것의 변화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은 또한 인간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듯하다. 실제로 오늘날 유전공학과 의학의 비약적 발달을 목도하고 전지구가 하나의 정보망을 통해 연결된 상태에서 인류의 우연적인 생물학적 진화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그것이 유익하건 유해하건 간에 인간은 생태계의 흐름에 자의적 교란을 가하는 존재가 되었다. 어쨌든 미래는 열려 있다. 인간의 문화가 생명의 역사에서 하나의 창조적 비약으로서 나타난 것처럼 이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도 인간성 속에 잠재하는 생명적 창조력에 의해서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20세기 초반에 생명과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숙고한 한 유태인 철학자가 던져준 메시지이다.

27) 가령 에클스는 이러한 의견을 개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인용을 하고 있다. "언어에 대한 유전자는 없다(Dobzhansky). 단지 인간의 언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영역이 있을 뿐이다(Chomsky)." 「뇌의 진화」, 박찬웅 옮김, 민음사, p. 323.

The Signification of Indetermination in Life :
Bergsonian Interpretation of Evolutionary Theory

Hwang Su-Young

The question of life has been a privileged object of philosophical reflection from the beginning of history of philosophy. However, the theory of evolution which appeared in the 19th century has deeply changed our perspective of life. Life has been treated as machine ever since. Moreover, the molecular biology which develops rapidly nowadays seems to establish a mechanical view of life. Nevertheless, the mechanism necessarily exposes an imperfection and a limitation in explaining the world of spirit and consciousness. That is why Henri Bergson endeavored to shed light upon the signification of life in his evolutionary philosophy. Considering Bergsonian view of life, I would like to reflect on the eternal question where we are in the history of life.